

# 교사와 함께하는 예비학부모 배움터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예비학부모교실 교안연구팀

"부모만큼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적당한 교육자는 없다."

- 독일의 교육자 헤르바르트

## I. 내 아이 이해하기

### 신체발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운동 기능이 활발하며, 달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대 근육이 발달하여 몸 전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더 익숙합니다. 신장과 체중의 차이 커지는 제2의 신장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뛰기를 좋아하는 이때는 생활 속에서 심한 장난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 신체에 대한 민감성과 평형성이 부족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편식하는 아이가 두드러지고 위생관념이 부족한 때이기도 합니다.

### 생각발달

또한 아이들은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물건을 보고 만지며 흥미를 갖습니다. 이런 호기심과 흥미의 발현은 신체감각으로 받아들여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감 활동이나 구체물 조작 활동 등을 충분히 하여 이 시기를 만족스럽게 보내게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때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여 산만합니다. 정서적의 지속 시간이 짧고 강렬하고 자주 변하며 동일한 작업에 오랫동안 열중하지 못합니다. 안정된 주의 집중력 4-5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입니다. 이 시기에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자기들만의 세계를 가지려고 하며, 남과 여 구분 없이 잘 어울리나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솔직함이 물어납니다. 또한 상상의 세계를 현실과 구분하지 않아 가끔 엉뚱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약자로서 어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쉽게 느끼며 그래서 일관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 정서발달

아이들에게 1학년 입학은 심리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함께 이때부터는 자아존중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아존중감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라는 심리적 안정감이고, 나는 할 수 있는가? 라는 자신의 효능감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라고 하여도 학교에서는 나에게 모두 집중하고 반응해 주지 않는 사회적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잘한다고 인정을 받은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환경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는 다른 아이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때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또래집단에서 인정받고,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게 됩니다. 사회성 발달이 부족한 아이들은 또래집단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를 아이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공감하며 대화하고 공감하는 행동을 안아주기나 뽀글고 놀기 등 감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기를 즐기는 때이니 좋은 책을 골라 읽어주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 만족지연

이 때 이를 극복하는 아이들의 능력의 원천은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족지연은 아이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당장의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교라는 교실에서 놀고 싶은 것을 참고 책상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참고, 친구들이 하자고 하는 놀이를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만족지연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배웁니다. 때를 쓰는 아이들은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감정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과 학습에 방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때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감정상태만 불만에 찬 상태로 참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행동의 결과로 학교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II. 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의 이해

### 과잉된 자극

아이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자극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극의 과잉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 컴퓨터 게임, 오락기 등 아이들의 주의력을 끄는 자극이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극들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거나 부모와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매우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재미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구와 놀이를 하는 것도 함께 하는 어떤 놀이를 한다기보다는 각자 게임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와 같이 어울려 놀려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고 차례를 기다리기도 해야 하며, 친구와 타협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성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자극들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또래문화에 계속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대화, 또래 친구와의 놀이를 통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노력과 자극적인 TV나 게임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 과잉학습

아이들은 전반적인 학습과잉상태에 있습니다. 제 나이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공부를 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벌써 한글과 수학과 영어를 배우고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공부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벌써 결과와 정답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배워야 할 학습습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배워서 가야 한다고 아이들도 부모님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선행학습을 하게 됩니다. 심하면 2년 이상을 선행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을 앞서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1등과 100점을 맞아야 하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게 됩니다. 성적은 높지만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선행학습의 수렁에 빠져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만의 학습습관을 기르지 못하고, 학원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잉학습은 아이들이 놀 시간을 빼앗아 버리고, 독서할 시간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선행학습의 늪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독서하고, 즐겁게 친구들과 놀 줄 아는 건강한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에 가기 전 준비 할 것은

### 즐거운 학교라는 긍정적 기대감

학교에 대한 친근감과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는 무서운 곳이고 잘못하면 선생님께 혼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에 입학기기도 전에 아이에게 학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즐겁고 신나는 곳이고 선생님은 너를 도와주는 친절한 분이란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독립심과 양보심 vs 과잉보호

독립심 양보심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과잉보호는 아이의 자율성, 창의적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엄마의 도움이 없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자신의 효능감을 떨어뜨려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들을 스스로 하게 하여 성취감, 성공감을 맛보게 하는 것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해 끊임없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여 성취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많으면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고, 시도하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면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교육에 화두를 던진 핀란드에서는 실패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실패를 패배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일을 참지 못하고 대신 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기다려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격려하고, 성공했을 때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 **바른생활습관을 가져야**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게 하여야 합니다. 늦잠 자는 버릇 고치기, 손과 발 씻기, 옷 벗고 입기, 대소변 잘 처리하기, 자기 물건 스스로 챙기기 등은 평소에 습관이 되도록 가정에서 지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일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혼자 가거나 든가 직접 말해보는 것을 경험시키거나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대변을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학기 초에는 긴장하여 실수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소변을 잘 참지 못하거나 실수하는 편이라면 교사에게 미리 알려주고, 여벌옷을 사물함에 챙겨 놓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실수 하더라도 절대로 야단치면 안 됩니다. 또한 급식이 시작되면 포크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젓가락 사용이 익숙하도록 집에서도 생활화를 합니다.

## **정리정돈 습관을 길러야**

아이들은 자기 물건 정리를 못해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갖고 논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정리정돈이 안될 때는 스스로 할 때까지 다소 냉정하게 참고 기다리며, 자기 물건이나 공간에 대한 권리와 함께 책임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부모가 잔소리만 하고 말로 시키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자기물건엔 자기이름을 써야**

기본적 학용품 갖추고 이름 쓰고,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하나하나에 이름을 쓰고 자기 것을 꼭 챙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가위는 아이가 손에 잡았을 때 안정적인 것을 구입합니다. 필통은 소리가 나지 않고 장식이나 오락기능 없는 것이 좋습니다. 리듬악기는 채가 분실되지 않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악기 등은 학교의 학습준비물 상황을 보고 준비하세요. 공책은 미리 사지 않고 학교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비오는 날 등을 대비해서 사물함에 놓을 우산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문제행동은 미리 알려야**

아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입학 전이나 입학후 담임에게 꼭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하거나 특별한 것일수록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특별한 행동을 하는 아이, 사별, 이혼, 별거, 충격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입니다. 말하기 어렵지만, 모르면 교사는 오해하거나 나무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알면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 **책을 읽는 습관을 공부의 기초**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5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 바르게 앉아 책 읽는 연습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소리 내어 있는 연습은 많이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학교에 들어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인내심이 길러져야 합니다.

##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해야

- ①책가방 : 책과 공책, 준비물을 잘 넣고 뺄 수 있는 것, 메고 다니기 편한 것, 잠금장치가 열고 닫기에 편한 것, 가벼운 것, 가방 크기가 적당한 것, 더러움이 덜 타고 튼튼한 재료로 된 것, 쓸데없는 장식이 지나치게 많이 달려있지 않은 것.
- ②실내화와 실내용 가방 : 입학 후에 학교의 형편에 따라 준비
- ③옷차림 : 장식물이 많이 달리지 않고 스스로 입고 벗기 편한 것(멜빵이나 리본 문제)
- ④학용품 : 요즘에 학교에서 한꺼번에 사 두고 쓰는 일도 있고, 학교와 담임교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이 되는 학용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둘 것은 학용품은 모양, 색깔보다는 품질을 살펴보고 고르기 바랍니다.
- ⑤연필 : 갓 입학한 아이에게는 연필을 쥐는 손의 힘이 약하므로 연필심이 약간 무르고 굵은 편인 2B나 B의 연필이 좋음. 딱딱한 심을 미리 쓰면 연필 쥐는 자세가 나빠져요.
- ⑥가위 : 안전가위를 삽니다. 아이의 손의 모양에 적당한 것으로 삽니다. 아이가 자라면 점차 가위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손에 맞은 새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 ⑦ 필통 : 간단하고 넣고 꺼내기 좋은 것. 놀잇감이 달려있는 것은 좋지 않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의 원인이 됩니다.
- ⑧공책 : 옛날과는 달리 공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공책은 특히 입학한 뒤에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보통 많이 쓰게 되는 공책에는 줄 없는 종합장, 네모공책(8칸 깎두기공책), 받아쓰기, 알림장 등. 사물함에 여유분 공책을 한 권씩 더 넣어 주세요.
- ⑨색연필, 크레파스 : 한 자루마다 이름을 써요.
- ⑩악기 : 리듬악기(탤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유틀락2개

※ 학용품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이름을 써 주세요. 이름을 쓰면 아이가 잃어 버려도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름만 쓰지 말고, 학년 반까지 정확히 써 주세요. 이름을 쓰는데 필요한 도구에는 견출지와 유성펜, 화이트가 있어요. 직접 쓰거나 붙일 수 없는 것에는 이름을 수를 놓아줍니다. 특히 풀은 몸체와 뚜껑에 모두 써 줍니다. 쓰다보면 한 쪽만 돌아다녀 못쓰게 됩니다.

## 학교에 가서는?

### 학습 준비물 갖추기

준비물 상자나 바구니를 마련해 놓아 주간학습안내문 등의 가정통신문을 보고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갖게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1주일동안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교과서를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작은 상자(과자, 화장품)는 많이 씁니다. 평소 모아 놓으면 좋습니다. 아이의 사진이나 가족 행사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잘 찍어진 것은 몇 장 더 인화해 놓으세요.

주간학습안내와 알림장은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아들에게 엄마를 보자마자

알림장 내용을 읽어 주게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요즈음에는 주로 알림장을 직접 쓰는 것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사에 따라 두 가지의 방법을 다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1학년이기 때문에 알림장을 활용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교사가 안내해 줄 것입니다. 준비물이나 1학년의 숙제는 수업의 집중도나 자신감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학교에 오는 길을 스스로 익힙니다. 못내 아쉬워 무거운 책가방을 들어주고, 오고 가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교실 복도까지 친절하게, 과잉적으로 관리하시는 부모님은 아이가 홀로 서게 도와 주십시오. 호기심 많은 아이가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경험을 만끽하게끔 부모님이 여유를 가져 주세요. 등굣길은 입학식 직후부터 스스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려워한다면 같이 다닐 친구나 선배를 만들어주거나, 점차 거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방과 후 활동**

맞벌이를 하는 부모라면, 1시 이후부터 활동할 것을 아이의 동의 속에 계획하고, 담임교사에게도 상황을 미리 알려주어 시간활용과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돕습니다. 방과후 활동을 하더라도 아이가 휴식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안정감이 부족하거나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뭔가를 많이 가르치려는 것 보다는 주변의 공부방처럼 쉴 수 있고 학교 숙제도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가 다쳤어요**

흔하게 긁히거나 부딪혀 생기는 상처는 보건실에서 거의 치료합니다.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큰 사고 일 경우에는 우선 정신이 없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형식적인 처리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학교 수업활동 중에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한 상대가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 앞으로 가입한 보험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저 침착하게 전후 좌우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상대의 부모와 도리어 감정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지는 않아야 합니다.

### III. 내 아이 지도 - 어떻게 하면 좋을까?

#### 2009개정교육과정 초등 교육 목표(1~2학년)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 입학 전 공부

2011년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1학년과 2학년에 적용됩니다. 교과와 내용과 교과서에는 변함이 없는데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합쳐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인 자율 활동으로 입학 적응활동을 할 것입니다. 기간은 학교마다 정하기 나름인데 적어도 2주~4주 정도의 시간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때는 주로 특별한 교과서로 공부합니다. ‘우리들은 1학년’ 책을 없애려 하였으나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우리들은 일학년’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연필을 쓰지 않으며, 선 따라 그리기, 가위를 사용하여 모양오리기 등의 감각활동과 수놀이, 말놀이, 바깥놀이를 주로 합니다. 글자 공부도 색연필로 책에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게 하고, 숫자도 1에서 9까지 색연필로 따라서 그리게 하는 정도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차이가 많아서 소근육을 잘 사용하는 나름 정교한 아이, 빨리 깨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좀 늦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이 한글을 깨치고 입학하는 만큼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을 깨치고 가는 것 좋습니다.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경우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큰소리로 따라 읽게 하고, 몇 글자씩 써보게 하면서 글자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천천히 익혀 나가게 준비하면 됩니다. 수학은 1~10까지 능숙하게 셀 수 있고 간단한 덧셈이 가능한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1학년 1학기의 내용은 수 가르기, 수세기, 1~50수, 간단한 덧셈과 뺄셈정도입니다. 먼저 1~10까지의 수 카드나 사탕, 막대 등을 가지고 수가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여러 가지 놀이를 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친구와 관계 맺기를 잘 하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물건을 빌릴 때는 꼭 허락 받아야 합니다. 친구가 필요로 할 때는 준비물을 나누어주거나 빌려 줍니다. 친구를 놀리지 않는다. 손과 발을 사용하여 친구를 건드리지 않는다. 잘못했을 때는 ‘미안해’. 도와줄 때는 ‘고마워’를 사용합니다.”

요즈음은 교육과정이나 학습활동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어서 모든 과목에서 계속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활발하게 발표를 많이 할수록 교사도 힘이 덜 들고 아이들은 재미있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회가 없어 발표하지 못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교사는 아이들이 발표를 많이 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나오면 평소에 발표를 잘 안 하던 아이를 얼른 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교사가 물을 때마다 손을 들며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무 때나 잘 하니까 아이들이 손을 많이 들 때는 일부러 기회를 안 주게 됩니다. 그러니 담임이 누구는 잘 시키고 우리 아이는 안 시킨다는 말은 옛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이가 “선생님은 내가 손을 들어도 안 시켜 주어요.”라고 해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 **받아쓰기**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점수로 기록되는 받아쓰기를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활동에 비해 확연히 점수가 드러나 아이들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받아쓰기와 공책에 베껴쓰기가 글자를 잘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이들이 글과 친해지고 글을 잘 알게 되는 방법은 받아쓰기나 베껴쓰기 말고도 전래동요나 고운 노랫말, 그림책, 그리기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받아쓰기 자료는 대부분 읽기책의 내용에서 어렵거나 익혀야 할 글자들을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점수 표시나 운영 방법 등은 교사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미리 자료를 받게 되므로 그때그때 연습해 갑니다. 이때도 글자가 나와 있는 단원의 글을 소리 내어 읽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글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 1학년 교육 과정 안내

### 유치원(유아원)과 초등학교 교육의 다른 점

관 점	유치원(유아원)	초등학교 1학년
(1)교과	아동들의 생활 영역을 바탕으로 짜여짐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탐구생활 ·언어생활	※3월 입학초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활동 영역)이 주로 이루어짐 ·바른생활, ·국어 ·수학, ·즐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계 5 과목)
(2)시간운영	자유로움	기본이 40분 수업으로 계획적인 운영
(3)용 어	‘활동’ ‘놀이’	‘수업’ ‘교수-학습’
(4)교과서	없다	있다
(5)문자지도	기본적으로 가르치지 않음.	문자를 가르친다.
(6)연산 (셈하기)	숫자를 통한 덧셈, 뺄셈이 없음.	덧셈, 뺄셈을 지도함.
(7)학습지도	학습내용을 통합적으로 지도	점차 분과적으로 지도 (1,2학년 :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통합, 3학년 이상 : 분과)

### ※창의적 체험활동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 교과 외 활동

적용 학년 : 1, 2학년

영역 :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시간배당 : 1~2학년군 (272시간) \*1학년에서 136시간 정도 활동함.

### 국어 활동

국어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는 전체 공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적으로 말하고 듣는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부모님과 말을 주고받는 활동을 자주 해야 합니다. 말놀이를 하는 활동 중에 쓰고 싶은 글자나 문장을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문자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1학기 동안에는 한글을 익히는 데 집중합니다. 1학년에서는 한글의 자모와 간단한 문장부호 익히기, 임자말과 풀이말을 띄어쓰기, 연음법칙 이해하기 등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글을 쓸 때 분량은 3~5 문장 정도로 하여 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한 1학년은 문학작품과 친해지는 초보독서기로 책을 많이 읽어 주거나 학생이 소리 내어 읽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책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합니다. 또 그림책을 보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여 그림책을 충분히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책과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책 속에 맛있는 과자나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넣어두고 그 책을 찾아 읽게 하는 접근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대화할 때는 유아적인 발음과 유아어를 사용하므로 커 나간다는 기대감을 살려 주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교정해 줍니다.

한글 미해독 아이일 경우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말하기 능력이 있으면 잘 생활합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늦게 글자를 깨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교과서와 알림장에 자주 등장하는 글자를 먼저 학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선, 큰소리로 여러 번 책을 읽도록 해주세요. 발표할 것이 있으면 집에서 미리 연습해보게 합니다.

## 읽기 지도

읽기는 언어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일부분입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과목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과목을 배우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역사, 국어, 과학 등 많은 과목을 읽고, 쓰고, 강의를 듣고 말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읽기를 통해 다른 과목의 내용을 배웁니다. 즉 읽기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수단이 됩니다. 1학년 시기에는 큰 소리 내어 읽기, 자연스럽게 읽기, 흉내 내어 읽기 등의 방법을 안내해 주면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눈으로 보면서 소리 내어 읽는 것. 소리 내지 않고 눈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 것 등 적어도 두 가지 감각 이상을 활용하여 읽게 하면 글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 1학년 수준의 읽기능력

#### 가) 낱말실력

- ① ㄱ, ㄴ을 순서대로 알고 나중에 사전을 쓸 줄 아는 기본 능력이 됩니다.
- ② 눈으로 봐서 아는 단어가 200개 이상 되어야 합니다. 문맥상의 단어가 아니라 단독으로 쓰는 능력입니다. 구두 언어의 경우 최소한 7500개 이상의 단어를 알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새로 배우는 단어는 2500~3500개에 이릅니다.
- ③ 글자 하나하나에 소리가 나는 것과 자음과 모음의 차이도 알게 됩니다.

#### 나) 이해력

- ① 간단한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 ② 교과서 내용을 읽고 중요한 일을 파악하고, 주제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 ③ 읽으면서 상상 속 이야기 인지 실제 있었던 일인지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 ④ 책을 읽은 후 글의 제목을 알맞게 선택해 낼 수 있게 됩니다.

#### 다) 소리 내어 읽는 능력

- ① 소리 내어 읽을 때 발음이 정확하게 됩니다.
- ② 소리 내어 읽을 때 그 뜻에 따라 크게 읽거나 멈추거나 한꺼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 라) 조용히 읽는 능력

- ① 소리 내지 않고 읽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빨리 읽기의 근본 바탕이 되는데 이 나이에 습관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나중에도 쓸데없는 없는 단어, 즉 별 뜻이 없는 단어까지 읽어 내느라 읽는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 ② 고개를 움직이거나 일일이 손으로 문장을 따라가며 읽는 습관 등은 차차 고치도록 합니다.

## 책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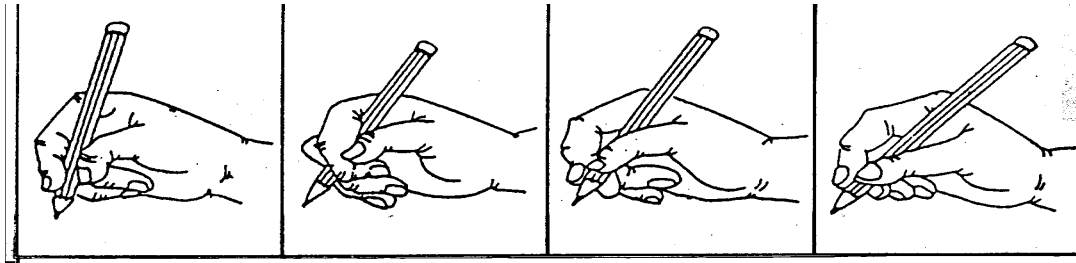
책 읽어 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독서는 부모님과 함께 하며, 글자뿐 아니라 그림도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책은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질리게 많이 읽히기보다 책이란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책읽기를 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번호	책이름	번호	책이름
1	구름빵	26	설빔
2	특별한 1학년	27	구두장이 꼬마요정
3	터널	28	구렁덩덩 신선비
4	강아지 똥	29	우리 할아버지가 꼭 나만 했을 때
5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30	나무는 좋다
6	돼지책	31	내 동생 앤트
7	영똥이 똥이	32	거미동동 시리동동
8	누가 내 머리에 똥샀어	33	넉 점 반
9	씩씩한 마들린느	34	장갑
10	프레드릭	35	눈사람 아저씨
11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36	떡먹기 내기
12	지각대장 존	37	똑딱똑딱
13	어처구니 이야기	38	똥떡
14	구름파 유치원	39	만희네 집
15	장갑	40	버가 자란다
16	쿠키 한 입의 인생수업	41	심심해서 그랬어
17	말괄량이 기관차 치치	42	크록텔레 가족
18	솔이네 추석이야기	43	엄마마중
19	티치	44	왕치와 소새와 거미
20	갯벌에 뭐가 사나 볼래요?	45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21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46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22	개뼉 다귀	47	우아, 이만큼 컸어
23	감기 걸린 날	48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24	거미와 파리	49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25	거인 사냥꾼을 조심하세요	50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 연필 쥐는 자세

- 1) 연필은 연필심에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지 않게 엄지, 검지, 중지의 세 손가락으로 잡고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받친다.
- 2) 연필의 쥐는 각도는 60 ~ 69정도 약간 세운 듯한 기분으로 잡는다.
- 3) 가볍게 연필을 잡아야 속도를 낼 수 있고 글씨가 부드럽게 써지며 피로가 오지 않는다.
- 4) 경필 쓰기의 자세는 두 발을 적당히 벌려 나란히 세우고, 왼손은 글씨를 쓰는 밑 부분의 공책을 가볍게 누른다. 몸은 반듯한 자세에서 약간 앞으로 숙이되 너무 굽히지 않는다.

연필 쥐는 각도가      연필 쥐는 방법이      연필심에 너무 가      바른 자세임(○)  
 좋지 못함.(×)      틀림(×)     깝게 잡았음(×)



## 수학 지도

1학기까지는 별로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흥미롭게 참여합니다. 초기의 몇 개월간은 1-10까지의 수 개념 형성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숫자 공부는 생활 속에서 놀이처럼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교과서 부록으로 수카드가 첨부되어 있으니 학교 공부 후에는 집에서 가지고 놀게 합니다. 가정에서는 너무 큰 수를 지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물체를 가지고 수 개념을 익히게 하거나 가게 놀이, 달력의 날짜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 개념이 형성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3-6-9게임이나 칠교놀이 등을 함께 하며 수학에 친근감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후좌우’, ‘높다 낮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와 요일, 날짜, 시계 보기 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9까지 덧셈과 뺄셈의 계산과정이 구체물을 통해 아이들의 머리 속에서 논리적으로 자리 잡도록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수학익힘책을 풀 때 많이 틀리는 것은 문제가 글로 되어 있어 해석적 능력, 국어 능력 면에서 부족함이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간혹 문제집을 풀게 하며 아이들을 일찌감치 수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멈춰주세요.

2007 개정 교육과정(2009년부터 적용됨)부터 수학은 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이 아니므로 교과서도 수학-가, 수학-나의 표현이 아니라 수학 1학년 1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기말에 통지표나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1,2학기를 단계로 이수한 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교과처럼 1,2학기 종합하여 합니다.

## 영어학습지도

영어는 아직 1,2학년은 해당 없습니다. 그러나 3,4학년에서는 1시간에서 2시간, 5,6학년에서는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영어전담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에 영어회화전담강사가 배치됩니다. 지금부터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2년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행학습이 가장 많은 것이 영어입니다. 영어는 모국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게 되면 오히려 모국어와 영어 모두가 잘 배워지지 않습니다. 언어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의 우선적인 과제는 모국어인 우리말을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바탕위에서 영어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영어학습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며, 오히려 영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엄마가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의 아이는 인터넷 영어학습 등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엄마와 10-20분정도 복습하면 됩니다. 그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아이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등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영어도서관이라 해서 학교홈페이지나 학교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공부방으로 올려놓은 곳이 많습니다.

3학년부터 배우는 영어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입니다. 학교마다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교과서를 선택합니다. 현재 14종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교과는 혼자서 2008 개정 교육과정이란 명칭을 달고 있습니다. 교과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강조하며** 심화내용 삭제 하고, 기본 학습 내용만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학년별 어휘도 조금 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화내용을 기본활동 내용으로 포함시켜 양을 늘렸고, 알파벳 문자 지도를 3학년 2학기로 앞당겼습니다. 6학년 때에는 에세이 쓰기도 넣었습니다. 학습내용 통합적이라 좋은 점도 있으나, 사교육 안 받는 아동에게 더 어려운 교과가 될 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여기마다 학교마다 영어회화전담강사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수업과 평가권을 가진 영어회화전담강사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어회화전담강사들의 질 관리(초등교육에 대한 이해,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급식 지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단체 급식이 이뤄집니다. 특히 단체급식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에게는 식사 태도를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급식을 하면서 반찬과 밥을 남기지 말라고 지도하는 선생님도 있으니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집에서부터 평소에 가리지 않고 자기 음식을 다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급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있지만, 점점 나아지면서 1학년이 끝날 즈음에는 대부분 밥 먹는 습관이 좋아집니다. 편식이 아주 심한 경우는 억지로 급식을 다 먹이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께 미리 이야기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식 때문에 학교 가기가 두렵거나 싫어질 수 있습니다.

## IV. 학부모의 참여 활동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로 인식하게 되었고 좀 더 세심한 관심을 학생에게 보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께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학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교육을 가치 있게 여기는 소중함을 보여 주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도를 돈독히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학부모의 활동은 자녀에게도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학습 동기를 높여 참여도는 물론 학업성적 향상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 담임 선생님과 만나기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의사소통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를 중심에 놓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함께 협조해야 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동교육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찾아갈 시간이 없다면 편지로 인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와의 편안한 인간 관계 형성입니다. 물질은 오히려 관계 형성에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한다든가 좀 늦는다는 이야기, 몸이 안 좋은 상태는 동네 아이들 편에 쪽지를 보내거나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어떤 상담할 일은 하루 수업을 다 마친 후에 하면 좋습니다. 1학년은 12시30분쯤이면 공부가 끝납니다. 좀 긴 이야기라면 전화보다는 편지를 하시거나 학교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보고 이야기하면 문제해결에 오해가 적습니다.

꼭 의논해야 할 특별한 문제로 학교에 오실 때는 아이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언제쯤 오시겠다고 알려 주시면 선생님도 그 아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아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영 이해가 안 가는 일이나 불쾌한 일이 있다면, 예의를 갖추어 물어서 궁금증을 풀도록 하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엉뚱하게 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적당한 거짓말을 꾸며서 하는 경우도 있어 교사 자신이 놀랄 때도 많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아동인권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아이에 관해서는 되도록 많이 이야기해 줄수록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집안에서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은 되도록 숨기려 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담임이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성격이나 아이의 여러 면에 관해서, 그리고 부모의 교육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 주면 담임이 아이를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며, 편지로 써도 됩니다.

## 학부모 참여 활동으로 만나기

학교가 운영되는데 학부모의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그 위상도 높습니다. 학부모 활동으로는 학교 운영위, 학부모회, 녹색 어머니, 급식 검수와 배식, 명예교사 등을 구성합니다. 이 모두다 학부모님들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명예교사의 경우, 도서관 책읽어주기, 빗그림 공연 등을 보람 있게 합니다. 교사가 가장 힘들 때 중 하나는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 단체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젠 학부모총회는 주체인 학부모가 앞장서서 회의하며 대표를 선출하고 그 역할도 정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학급에서의 부모 참여활동은 대부분 열의를 가지고 있어 참으로 알차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사는 물론이지만 학급의 일 년 행사에도 그 때 마다의 의미를 살려 함께 진행합니다. 단오 부채 만들기, 장명루 만들기, 떡 해먹기, 뜨개질, 고무줄놀이, 생일잔치, 현장학습, 학예회 등 그저 관리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활동을 담임과 의논하여 서로의 역할을 맡아 활동합니다. 고되지만 뿌듯한 존재감이 살아나는 명예교사입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활동은 학급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적으로 지역 환경에 어울리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진행하는 아이돌 돌봄 활동을 소개합니다. 대부분 학부모 모임에 가입한 분들로 각자의 역량과 참여 정도가 다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지역참여 활동을 하는 분, 양육에 여전히 허덕이는 분과 그냥 가정주부로서 있는 분. 역량에서 보면 미술을 잘하시는 분,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 교육에 대한 흐름을 잘 읽어내시는 분 등 골고루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일은 박물관, 무료 음악회, 도서관(책읽기/ 영화보기), 운동장에서 실컷 놀기, 비오는 날 비 맞기, 동네 길 산책하기, 산 오르기 등입니다. 부모들은 공동체인 품앗이처럼 계획을 짜거나 그날그날 직접 참가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간식을 보태거나 합니다. 굳이 특별한 역량을 가지지 않았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아이들은 마냥 즐겁고 신나며 저절로 부모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학급에서도 이 아이들은 경험을 쏟아내느라 신이 납니다. 부모들은 교육활동의 들러리가 아닌 협력자로서, 양육자가 아닌 참된 부모로서 아이는 물론 자신의 삶도 성장시키는 행복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서 돌봄이 필요한 소외된 아이들을 적극 배려하는 시간을 담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전해 가리라 기대합니다.

## <학부모모임(예시)>

학습 자원 봉사 / 영어수업봉사단 / 시험보람봉사단 / 역사교실도우미/ 야간 학습 자원봉사단 / 학습자료도우미/ 사임당 어머니회 / 학부모보람교사회 / 명예교사회 /교통 자원 봉사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킴이/도서관 자원봉사 /도서봉사위원회 /명예사서회,도서명예교사,도서도우미/도서관 봉사단(대출 등 도우미,책읽어주는 어머니 모임)/급식 자원봉사 / 급식봉사위원회 /급식모니터단 (학교급식모니터회) /학교 행사 자원봉사/체육대회도우미, 체육도우미 /아버지회 /어머니회 /지역사회어머니회/안전 관련 자원봉사 /안전동지회 /방과후안전지도/ 학부모자치방법대원/배움터안전지킴이/ 상담 관련 자원봉사/ 상담도우미/ 학부모상담실도우미

## IV. 내 아이 취학능력 체크하기

### 1. 취학능력 판단 체크리스트(□에 체크해 보세요)

#### 1) 인지능력

- ☐ 자기 집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말할 수 있다.
- ☐ 어른 도움 없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 5~10개의 단어를 받아 쓸 수 있다.
- ☐ 네모 칸에 글씨를 써넣을 수 있다.
- ☐ 간단한 덧셈을 할 수 있다.

#### 2) 생활능력

- ☐ 숟가락 젓가락을 쓸 수 있다.
- ☐ 전화를 걸 수 있다.
- ☐ 신호등을 보고 혼자 건널 수 있다.
- ☐ 운동화 끈을 혼자 맬 수 있다.
- ☐ 자동차 안전띠를 혼자 맬 수 있다.
- ☐ 무슨 요일인지 말할 수 있다.

#### 3) 대인관계 능력

- ☐ 간단한 게임 규칙을 지킬 수 있다.
- ☐ 자기 실수를 사과할 수 있다.
- ☐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

#### 4) 대근육능력

- ☐ 한발로 꺾충 뛰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 ☐ 4m 떨어진 거리에서 공을 받을 수 있다.

#### 5) 미세근육

- ☐ 세모를 그리거나 복잡한 모양의 선을 가위로 오릴 수 있다.
- ☐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다.
- ☐ 공책을 찢지 않고 지우개로 낙서를 지울 수 있다.

※위 문항 중 3분의 2 이상(12개) 가능하면 취학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V. 초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 1. 초등학교교육의 성격

- 초등학교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 초등학교 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 초등학교 교육은 후속하는 모든 학교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교육입니다.
- 초등학교 교육은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성장의 제 측면을 풍부하게 하는 전인교육입니다.

### 2. 교육과정 및 내용

유치원 교육에서는 유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교육으로 간주됩니다. 교육의 주체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각 어린이가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바로 교육의 성과인 셈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육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내용이 지식의 체계에 따라 여러 개의 교과목으로 구분되어 주어집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1학년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초등학교 올해 입학하는 1학년부터 1~2학년군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군 교육과정 연간 운영은 ,

- 1) 연간 법정 수업 일수 : 220일(주5일제 2회 실시에 따라 학교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205~208일 실시)
- 2) 수업 시간 : 1년간 약 830시간 정도를 배우며 매주 25시간 정도의 학습
- 3) 주5일제 수업 :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월 2회(매월 2, 4주) 실시함에 따라 1, 2학년은 총 수업시간 수 감축 없이 시행하므로 토요일업일의 수업 부족분을 평일에 실시하여 학교에 따라 다르나 5교시 수업하는 날이 대개 주 1일 정도 있습니다.
- 4) 1~2학년군 교육과정 시간 배당은 교육부 기준 시수에 맞추어 학교별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으며 예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교과	1~2학년					
		기준	1-1	1-2	2-1	2-2	증감
교과	국어	448	92	112	122	112	▽10
	수학	256	60	62	68	64	▽2
	바른생활	128	28	33	35	34	△2
	슬기로운	192	42	48	54	54	△6
	즐거움	384	86	100	105	102	△9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기준	1학년		2학년		계
	자율활동	272	154		80		234
	동아리		5		11		16
	봉사활동		5		5		10
	진로활동		6		6		12
계		1680	833		852		△5

## 5) 교과

### 가) 통합교과

- ①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개념을 탈피하여 활동주제중심의 열린교육
- ②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③ 입학 초 적응활동
  - ㉠ 입학 초기 학교적응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
  - ㉡ 통합 교과의 정신을 극대화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 ㉢ 상황 중심, 생활 중심, 경험 중심, 활동 중심의 주제 설정과 창의적·탐구적 활동을 강조하고 놀이 활동 강화
  - ㉣ 유치원과의 학습 경험 연계성 고려
  - ㉤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사·도 수준 내용 재조직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
- ④ 바른생활
  - ㉠ 특성 : 내일 스스로 하기, 예절 지키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 하기의 다섯 영역으로 내용을 조직한다.
  - ㉡ 목표
    -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 일상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규범을 실천하여 습관화하게 한다.
    -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실천을 통해 건전한 인성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 ⑤ 슬기로운 생활
  - ㉠ 특성
    -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자기와 주위 환경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을 다루도록 설정된 통합 교과이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습관을 몸에 익혀 슬기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 생활의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는 데 강조점을 두는 교과이다.
    - 이 교과에서는 사회와 자연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관찰, 분류, 측정, 만들기,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 이 교과는 학생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게 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힘쓰며, 도덕적이며 심신이 건전한 사람을 기르도록 하였다.
  - ㉡ 목표
    -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

러 준다.

- 자신과 주위의 환경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궁리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준다.
-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주위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초보적인 탐구 능력을 길러준다.
- 주위의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알아보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⑥ 즐거운 생활

### ㉠ 특성

- 「즐거운 생활」은 즐겁고 건강하며 창의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통합 교과이다.
- 「즐거운 생활」은 아동들의 활동 욕구 충족과 전인적 성장에 관련되는 신체적·음악적·조형적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 「즐거운 생활」은 신체활동, 표현활동, 감상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내용을 조직한다.
- 「즐거운 생활」은 경험 중심의 학습을 전개한다.
- 1학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다.

신체발달	기본적인 신체운동기능, 대근육 발달, 강한 활동성
인지발달	비논리적 지각중심사고, 주관과 직관의 내분화, 구체경험 필요
정서발달	강력하고 일시적, 애정, 인정받는 욕구, 불안, 두려움, 상상 풍부
사회성	자아의식 강해짐, 또래 집단기, 성역할
음악성, 조형성발달	리듬, 가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상을 주관적으로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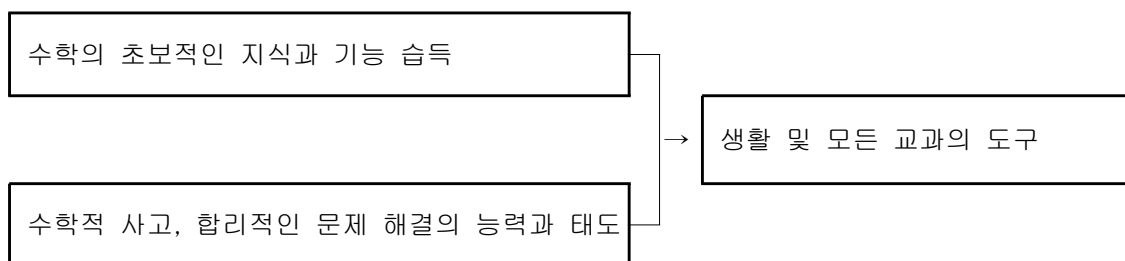
### ㉡ 목표

-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하여 운동의 기본 기능을 기르고, 건강과 안전생활을 습관화하게 한다.
-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타나게 한다.
- 여러 가지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들으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 나) 수준별 교육과정

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 수학1-가(1학년 1학기), 수학1-나(1학년 2학기)

### ㉠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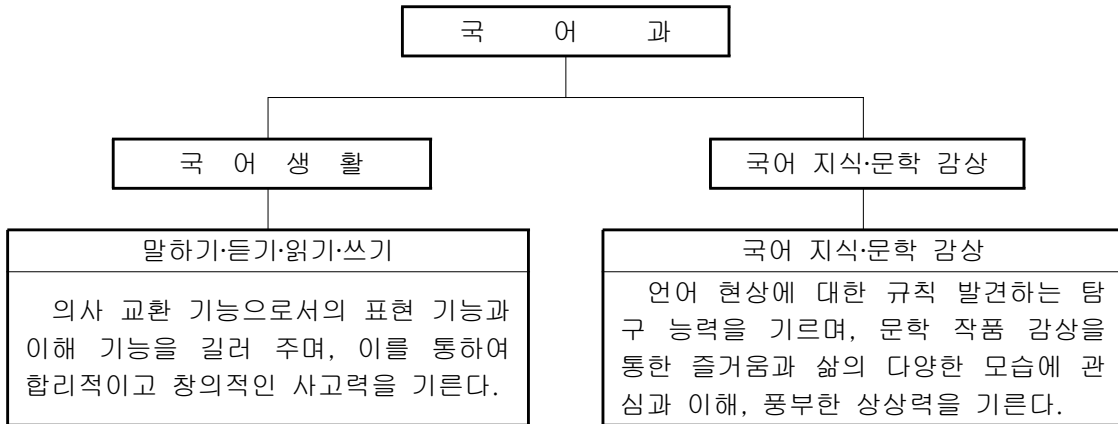


㉞ 목표

- 0과 자연수(0~100)를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두 자리의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물체의 모양에서 기본 도형의 모양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구체물의 직접적인 비교나 직관을 통하여 측정하는 기초적인 경험을 갖게 한다.
- 수학에 관련된 문제 상황을 그림이나 조작활동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관한 기초 경험을 갖게 한다.

㉟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 국어

㊱ 특성



㉞ 목표

-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힌다.
-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 6) 재량활동

- ①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

#### 7) 특별활동

- ①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이외의 활동
- ②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
- ③ 영역 :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

### 3. 교수·학습 방법

유치원의 교수·학습방법은 교사중심의 교육방법 보다 유아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별학습과 구체적인 조작학습이 놀이 활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의 교수·학습방법은 학습목표 달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성할 교과 목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전략이 활용되고 있으며 학습활동도 교사의 통제적 방법 하에 자리 학습, 일제 학습, 협동 학습, 능력별 개별학습 등의 형태로 발문과 반응, 토론, 관찰, 측정, 분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4. 평가

유치원 교육의 경우 검사나 시험 등의 형식적 평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로 교사가 다양한 사태에서 유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남깁니다. 초등학교 교육의 경우 기술평가가 도입되었지만 최근 학력향상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시험을 통한 지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의 대상과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 VI.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 1. 이걸 꼭 가르쳐 주세요.

#### 학교는 즐거운 곳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학교를 ‘즐거운 곳’, ‘신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너 이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난다.”, “까보면 무서운 아이들에게 맞는다.”와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자칫 들어가기도 전에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가 유치원보다 친구도 많고 재미있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시킵시다. 실제 입학해서 지각하지 않으려면 오전 7시까지, 늦어도 7시 20분까지 쯤엔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이가 잠자리 정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준비물을 챙기는 '등교준비' 시간을 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생기는 안전사고의 53%가 교통사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1학년 학생들의 사고가 가장 잦다고 합니다. ‘차 조심하라’는 말로는 절대 부족한 것이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신입생 자녀에게 ‘녹색등이라도 다시 한 번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기’, ‘자동차가 서면 운전자와 눈 마주치기’, ‘차 밑에 물건이 들어가도 직접 꺼내지 말고 어른에게 부탁할 것’, ‘공은 발로 차면서 다니지 말고 망이나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닐 것’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 전에 등굣길을 아이와 함께 답사하는 것은 필수이며 위험한 골목길이나 횡단보도가 없는지 체크하고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도 재보면 지도에 도움이 됩니다.

#### 학교 연중 스케줄 체크는 기본!

학교에서 행하는 연중행사 및 월중행사를 모두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소풍, 운동회, 학예회 등 대표적인 것은 메모해 두고 챙겨야 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예비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엄마의 관심이 자녀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월 첫째 주에 있는 입학식에서는 학급과 담임선생님을 알게 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로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학교도 많으므로 가족 여행 등 체험학습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사변을 생각하는 호국보훈의 달로 국기달기 교육과 나라 사랑 그리기 및 글짓기 등 학예행사가 있으며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여름방학은 7월 25일쯤, 겨울방학은 12월 26일쯤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한 학기 동안 익

힌 예능활동으로 합창, 연주 같은 학예발표회와 체육학습발표회를 엽니다. 추석 전후에는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내용은 알림장, 주간학습안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가져오는 유인물과 학교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 **나쁜 습관, 조금씩 고치세요.**

유치원까지는 ‘차차 곧 나아지겠지’ 하고 지나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놀던 때와 유치원 때에 비하여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학교는 다릅니다. 한번 나쁜 습관이 드러나면 눈에 띄게 되고 아이는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습관이 원치 않게 굳어지지 않도록 고칠 것은 알려줘야 합니다. “TV에 푹 빠져 지내서 걱정”이라는 엄마들이 지금도 많은데 무조건 ‘보지 말라’고 억박지르는 것보다는 오후 4~5시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만 TV를 보게 하는 등 조금씩 고쳐나가야 거부감이 없이 TV 시청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노래나 그림, 독서 등 다른 활동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도 알찬 방법입니다.

말을 더듬거리거나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는 크고 깊은 숨을 한번 쉬는 동안에 한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연습시킵시다. 낯가림이 심하거나 혼자 노는 데 익숙한 아이에게는 심부름이나 운동을 자주 시켜 자주성·협동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 **인내력과 근면성 기르기**

Erikson(1963)이 초등아동의 발달과업으로 제시한 근면성은 초등 학부모가 자녀교육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참으면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인내력을 키우도록 지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바대로 규칙을 따르는 습관을 유아기부터 길러온 것이 아동기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기반이 되겠지만, 초등시기 자녀를 둔 부모는 특히 자녀가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아동에게 가장 대표적인 일은 공부입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졌을 수 있지만, 이제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속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하고, 학습에서의 성공여부가 성취감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을 꾸준히 해내고 성공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학습에서의 성공경험을 가지도록 하려면 단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보다 규칙적인 학습습관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생활하기**

초등시기의 아동은 규칙적 학습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학부모는 자녀의 생활이 지나치게 학습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놀이와 학습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놀이는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아동들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놀이와 학습에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능력을 기르면, 자녀의 생활이 매우 활기차고 건강하며 능률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다른 아동들과 함께 하는 상호작용적 놀이를 많이 하도록 지도하면 협동성과 지도성도 높아지게 될 뿐 아니라 게임중독 등에 빠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의 기회 제공하기

자녀에게 일일이 간섭하기 보다는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부모는 자녀가 무조건 모든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선택의 기회를 주어 원칙이 지켜지고 책임감이 증가하도록 합니다. 자녀의 나이에 맞는 책임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 자녀는 확정되어 가는 한계 안에서의 자유를 느끼며 반항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가정 규칙과 가치가 존중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녀들은 부모가 확고하면서도 세심하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1) 선택의 예시

~ 5세	6세 ~ 12세
오늘 아침에는 오렌지주스를 마실래, 포도주스를 마실래?	수퍼에 나와 함께 가서 물건 고르는 걸 좀 도와 주겠니?
네가 혼자서 치울 수 있겠니? 아니면 내가 도와줄까?	너 숙제를 저녁 식사 전에 하겠니? 아니면 식사 후에 하겠니?
우리 같이 읽을 책을 엄마가 정해줄까? 아니면 네가 정하겠니?	할머니 댁에 갈 건데 일요일이 좋겠니? 토요일이 좋겠니?

#### 2) 부모의 유형에 따른 규칙 정하기

규칙 \ 부모유형	전제적 부모	자유방임적 부모	적극적 부모
규칙은 누가 정하는가?	부모	아이	부모와 아동간의 협의
그 이유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무제한 자유가 허용되고 부모는 아이의 심부름꾼이므로	부모와 아동 모두 중요하며 한 가족 구성원이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규칙은 언제 시행 됩니까?	상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	규칙은 시행되지 않음	원칙이 지켜지고 책임감이 증가



## 자존감 높이기

아이들의 자존감을 형성시키려면

자존감을 꺾기	자존감을 높이기
1. 부정적인 기대를 갖기	1. 자신감 보여주기
2. 실수를 책하기	2. 힘을 북돋우기
3. 완전주의(과잉기대)	3. 아동의 가치 인정하기
4. 과잉보호(과소기대)	4. 독립성을 자극하기

1) 자존감을 꺾기 : 자기 존중감↓→낙심→부정적 행동→처벌→더욱 기가 꺾임

가) 부정적 기대감

예1) “넌 아무래도 공부를 못하는 타입이야.”

예2) “안돼, 네가 그걸 사용하면 안돼.”

나) 실수를 지적하기

예1) “안경을 또 바닥에 두었니? 신중해라!”

예2) “글씨가 이게 뭐니?”

다) 완벽주의(과잉기대)

예1) “너는 영리하니까 더 잘 할 수 있어!”

예2)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어떻게 이 단어는 잘못했니? 생각을 집중하지 않았구나.”

라) 과잉보호(과소기대)

예1) “버스 타지 말고 엄마가 데려다 줄게.”

예2) “지하철을 혼자 타고 가면 위험해.”

2) 자존감을 높이기 :

가) 자신감 보여주기

① 자녀의 능력 안에서 책임감을 부여하십시오.

예) “개 먹이를 내가 준다고 하면 개 키우는 것에 동의한다.”

② 자녀의 능력을 믿고 존중하며 자녀의 견해나 충고를 구하십시오.

예1) “할머니 댁에 드라이브해 가려면 어떤 코스로 가는 게 좋겠니?”

예2) “새로운 게임을 하고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니?”

③ 자녀의 일을 부모가 대신하는 것은 기가 꺾인 아이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위축되었다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좌절을 참아내는 능력이 약해서 쉽게 포기하므로 부모 개입 충동은 물리치십시오.

예) “계속해라, 너는 그걸 해낼거야!”

나) 아동의 감정 다지기

① 자녀의 장점을 인식하십시오. 만일 아동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그 아동에게서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면을 찾아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자녀는 엄청난 격려를 받습니다.

예) “야 근사하다! 너 두 가지 숙제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된단다.”

- ②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격려하십시오. 아동은 자기존중감을 학습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은 많은 단계를 요하고 단계마다 실패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요합니다. 따라서 모험을 감수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줍니다.

예) “야,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었구나! 이제 힘을 내서 나머지도 한 번 해보자.”

- ③ 완전을 목표로 하지 말고 진보자체를 목표로 하십시오. 최종 목표 도달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계속 격려하면 우수한 작은 성공 경험이 되어 자기 존중감을 구축하여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애써 노력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격려 받을 만합니다.

예) “방이 참 깔끔하구나. 네 책도, 네 침대도, 시간이 되면 옷도 정리하도록 도와주마.”

다) 아동을 존중하기 : 자기 부모가 자기를 받아들인다고 느끼는 아동은 든든한 방석과 같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게 되며 여기에 근거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 ① 인간의 가치와 성취의 개념을 구별하십시오. 인간의 가치는 업적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또한 과제 수행 시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예1) “시험에 승리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예2) “네가 공부하기를 좋아하니까 아빠는 기쁘구나.”

- ② 인간의 가치와 그릇된 행동의 개념을 구별하십시오.

예) “네가 나쁜 것이 아니라 벽에 크레용으로 그리는 것이 나쁜거야.”

라) 독립심을 자극하는 방법

- ① 응석을 받아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라. 엄마는 그것만 빨거야.”

- ② 상호의존성(소속감)을 기르게 하십시오. 협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집단적 노력을 통한 기쁨과 혜택을 누리게 하십시오.

예) “소파로 와서 같이 얘기하자.”

## VII. 센스 있는 부모의 정보 나눔방

### 알람시계, 거실이나 부모 방에...

오전 8시30분을 전후로 등교 시간이 엄격한 초등학교에 다니려면 늦게 잠드는 습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낮에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한 후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들게 합니다. 알람시계를 아이 방에 놓지 말고 거실이나 부모 방에 두어서 그 소리에 아이가 깨서 걸어 나오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학교 화장실, 미리 보여주거나 알려줘야...

3월 한 달 중 1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소동은 ‘용변 사고’. 학교 화장실이 좌변기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용변 사고를 막기 위해서 화장실이 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줍니다.

### 1학년 교과서, 꼭 읽어보세요.

‘가나다라’나 ‘1·2·3·4’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수학 시간에도 단순 연산이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면 자녀 스스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의 교과서 내용을 미리 보고 싶다면 교육연구정보서비스(eris.knue.ac.kr)로 들어가 ‘교과서&지도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 공주 옷, 플라스틱 필통 금물

학용품은 필통, 연필 3자루, 지우개, 자 1개 등 최소한의 것만 준비합니다. 이름표 붙이는 일은 필수. 공책은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임교사에 따라 주문하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통은 소리 나는 플라스틱보다 천으로 만들어진 게 좋습니다. 게임이 부착된 것은 금물입니다. 색연필은 손으로 까는 것보다 뒷부분을 돌려쓰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파스도 12~18색이면 충분합니다.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슬리퍼형 실내용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피합니다. 장식 많은 옷, 리본 매는 옷, 멜빵 달린 옷, 벨트 매는 옷은 불편합니다. 벨트나 리본 매는 연습을 많이 시켜 주면 좋습니다.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좋고 운동화도 벨크로테이프(찍찍이)로 땀다 붙였다 하는 것이 편리하나 끈을 매는 운동화일 경우 끈을 매는 연습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 ‘극성’ 과 ‘무관심’ 둘 다 NO!

어머니가 1년 내내 자녀의 등하교를 함께하면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하나 보다’ 하는 마음에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학교생활이 궁금하다고 무턱대고 교사를 찾아가거나 수업 중 전화를 거는 것은 실례입니다. 이메일, 홈페이지, 알림장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전에 면담을 신청합니다. 학부모 총회, 학부모단체, 체육대회, 학예회 등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과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좋습니다.

##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이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들은 다소 산만하고 행동이 부산합니다. 그러나 집중력 부족과 산만한 행동이 상당히 지나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특별한 치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흘리거나 뛰어다니면서 위험한 행동을 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모습을 지닌 아동을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DHD)라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의 특징은 부주의성, 과잉행동성, 충동성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ADHD 진단기준>

A. 다음의 (1)이나 (2)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다음의 부주의함 항목 9개 증상 중에서 6개 이상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우로 아동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부적응과 불일치 장애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 [부주의함(inattention)]

- ① 학교일이나 과제, 활동에서 부주의하여 실수가 잦고 자세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 ② 과제를 수행하거나 놀이를 할 때 주의를 계속 지속하기 힘들다.
- ③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기 어렵고 학교일이나 과제를 완수하기 어렵다.
- ④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 ⑤ 과제나 활동을 조직하기 어렵다.
- ⑥ 학교 숙제같이 정신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싫어하고 안 하려 한다.
- ⑦ 과제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잘 잃어버린다.
- ⑧ 외부 자극에 쉽게 주의가 흩어진다.
- ⑨ 매일 생활에서의 일들을 잘 잊어버린다.

(2) 다음의 과잉행동성, 충동성 항목 9개 중에서 6개 이상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우로 아동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부적응과 불일치장애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 [과잉행동(hyperactivity)]

- ① 앉아서도 손, 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몸을 피한다.
- ② 앉아 있도록 요구된 교실이나 그 밖의 상황에서도 자리를 뜬다.
- ③ 상황에 부적절하게 과다하게 뛰거나 기어오른다.
- ④ 조용하게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조용히 놀기가 어렵다.
- ⑤ 지나쳐버리거나 모터를 단 것 같이 움직인다.
- ⑥ 말을 많이 한다.

**[충동성(impulsivity)]**

- ⑦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이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잦다.
- ⑧ 차례를 기다리기 어렵다.
- ⑨ 자주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또는 참견한다

B. 이러한 부주의함이나 과잉행동성, 충동성 증상이 7세 이전부터 있어야 합니다.

C. 이러한 증상들이 2곳 이상의 장소(예: 학교나 가정)에서 보여야 합니다.

D. 사회적으로 학업적으로 또는 직업적인 기능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장애를 초래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 이러한 증상들이 전반적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또는 다른 정신병적 장애 등의 경과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어서는 안 되며,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또는 인격 장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도 안 됩니다.

## 부모 10계명

초등학교 1학년은 아이가 처음 사회와 대면하고 앞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 지를 연습하는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지나친 걱정과 극성을 부리지 않고도 교사와 자녀에게 학부모가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학부모를 돋보이게 하는 부모십계명’이 있습니다.

- ① 교사를 믿고 도와라.
- ② 아버지도 교육에 동참하라.
- ③ 아이에게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 ④ 아이에게 학교는 규칙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 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아이의 건강관리를 점검하라.
- ⑥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어라.
- ⑦ 아이와의 갈등은 빨리 해결하라.
- ⑧ 부모의 욕심을 접어라.
- ⑨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⑩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절제된 사랑을 베풀라.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예비학부모교실 교안 연구팀

팀장 : 유지숙 (서울지부 정책실장)

교사 : 정현주 (서울 당촌초등학교 교사)/ 최선정 (인천 일신초등학교 교사)

전문가 : 김계순(유치원연합회 서부지역 분회장, 현대홍제유치원원장)

학부모 : 박이선 (학교 겁내지말자" 저자, 참교육학부모회 전 수석부회장)

김해수(개포고등학교 학부모, 전 대치중학교 운영위원)

전은자(서울지부장)